

45,386,000	2,838,000	416,900	1,788
366.2	1,006	27,530	26,310
714,500	199,500	28,070	1,764
10,200	979.5	127.5	

[뉴스]  
시중은행  
빗썸 등 거래소 4곳  
실명계좌 재계약 심사  
02



Economy

코스피	3267.93 (0.00)	코스닥	1015.88 (0.00)
금리(미국 3년)	1.313 (-0.014)	환율(원/달러)	1132.30 (+1.90) (18일)

# 철강도 후도 이커머스서 판다 디지털로 접점 늘려 고객 확보

## 산업계, 비대면 영업 강화

기아·BMW코리아·푸조 등  
차업체들, 온라인 판매 도입  
철강업계도 언택트 영업 바람

국내 산업계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 방식을 벗어나 비대면 영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대유행) 현상의 장기화로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면 영업이 주였던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가 2번째 이어지면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철강업계도 비대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온라인 판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 회사들은 노조의 거센 반발로 눈치를 보며 해법 마련



아우디 '온라인 차량 예약 서비스'

동국제강 스틸샵닷컴

에 고심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2019년 12월 오픈한 'BMW 샵'을 통해 한정판 모델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판매를 준비해왔다. 'BMW 샵'은 매월 새로운 한정판 모델을 선보이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달부터 'BMW 샵'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섰다.

푸조·시트로엥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지난 3월 온라인 구매 예약 플랫폼 '푸조·시트로엥 부킹 온라인'을 오픈했다. 푸조·시트로엥 부킹 온라인은 구매 가능한 차량을 조회하고 시승이나 구매 상담까지 윈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세

일즈 플랫폼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이용해야했던 차량 예약 및 구매, 고객 상담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소비자 차량을 탐색하고 계약까지 가능한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는 한국지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 판매 서비스 '쉐보레 e-견적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사전 예약금을 결제할 수도 있다.

기아도 최초의 전용전기차

'EV6'의 사전예약에서 온라인 예약접수 방식을 도입, 비대면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MZ 세대는 물론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EV6의 사전 예약대수가 3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54%가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하며 이를 입증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 채널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기존 딜러나 영업직 직원들의 반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 청년·신혼부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7월부터 서민 금융지원 확대  
40년 고정금리로 부담 낮춰  
청년 전월세대출 한도 1억원

오는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실수요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와 전세대출 보증상품 요건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원 이고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우선 금융위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출

(7월 시행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 3.6억원 (7.1일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6월 기준)	만기 창구 모집인	2.70	2.90	2.95	3.00	3.00~3.84% (은행별 상이)
	인터넷	2.60	2.80	2.85	2.90	
	*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시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예컨대 현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2.85%) 이용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용(2.90%)시 월 상환금액은 105만7000원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40년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

로 제공될 경우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목돈이 생길 경우 더 빨리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에 한해서다.

아울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 금리로 제공했다. 이를 이용하는 대출자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드테크의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 줄 '푸드리더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는 기업 경영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푸드테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일은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푸드리더'들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6월 2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1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1)'를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란 주제로 그동안 제시해 온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들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루 앤 윌리엄스 이노바마켓인사이트 공동 창업자이자 글로벌 인사이트 이사가 기조강연을 맡습니다. 이노바마켓인사이트는 이노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업계 친환경 ESG경영'을 주제로 하는 첫 세션에서는 저스트에서 글로벌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조단 테트릭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저스트는 실리콘밸리의 식물기반 푸드테크 선두주자로, 인공계란 '저스트 에그(JUST EGG)'를 개발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어 김대훈 누비랩 대표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누비랩은 1초 내 음식의 양과 종류를 파악하고 식품관을 분석해 개인 헬스케어 솔루션, 음식물 쓰레기 축소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세션에서는 식신 대표이자 한국 푸드테크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익 대표, 실시간 배송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가 연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푸드리더십, 비전에서 확실한 현실로
- 일 시 : 2021년 6월24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프로그램 및 강연자

구분	프로그램
기조강연	루 앤 윌리엄스(Lu Ann Williams) 네델란드 '이노바마켓인사이트' 공동창업자&글로벌 인사이트 총괄
	세션 1. 식품업계 친환경 ESG경영
강연	조단 테트릭(Jordan Tetric) 잇저스트(Eat JUST) 글로벌마케팅 대표
	김대훈 누비랩 대표
강연	세션2.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향상
	안병익 식신 대표, 푸드테크협회 회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 주 최 : 메트로미디어(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주 관 : 에이커스
- 등 록 : 참가비: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30명 제한)  
\*참가확인 메일 수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 문 의 : 에이커스(02-6020-6833), 이메일 fftkgo@gmail.com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신규확진 429명, 이틀연속 400명대  
... 국내발생 380명 /사진 뉴시스  
▲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개발 필요'...  
참여 의향은 2명뿐

▲ 공수처에 쌓인 고소·고발 600여건...  
'尹사건' 추가 되나  
▲ 순직 소방관 빈소 방문한 이준석 "안  
타까운 사고에 마음 무거워"



▲ '尹 잡는 매' 추미애 대권 등판... 與  
'빅3 구도' 요동 /사진 뉴시스  
▲ 국힘, 광주 봉괴사고·물류센터 화재  
질타... "관계자 처벌 당연"